

조선인권 제 30 보사 경최부장

박춘 대좌.

본명: 박 끈산(박진) 이와노키치, 1919년 11월 27일
 에 니콜스크-우쉬리스크주 그로레코보 구역 노재지 그로레코보
 시에서 출생하였다. 박춘 선생의 출생이 선생의 부모들은 농업
 에 종사하였으나, 선생의 삼촌 박응조씨는 원동에서의 백화
 근과 공산군과의 전투시 원동에 소비에트국 수립을 위하여 열성적
 으로 공민전쟁에 참가하였으며, 박춘 선생의 3촌 대장 장인덕씨는
 여맹사범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소련에 살고있는 전체 한인들
 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 삼촌 박응조씨는 1937년, 한인 강제이주
 시, 한인 전체 인테리들을 대폭 청산할시 거제제비 논에 붙잡혀
 죄임을 저 일분스파이를 함살당하고 아즈어님 장인덕씨는 그후
 계속 한인 신문사에서 교정원으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다 키웠고
 은퇴한다음에 오래 앓으시다가 연세 80세에 가까워서
 서거하시었다. 박춘 선생은 삼촌에 고증을 마감하고 강제
 이주후 우르백공화국 깡간트시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사
 대를 1941년에 졸업하였다.

조선인민의 조국전쟁의 가혹한 시기인 1941년부터 1942
 년까지 다유켄스크 공화국 구역 리흐마도브 끌호르에서
 교편을 잡고 일하다가 1942 말에 소련군에 호모되며
 로렌 레닌그라드 북쪽 조의리에 가서 새 월드 북설에 3년
 동안 복무하다가 1944년에 소련 최고 소비에트 명령 "조선
 군 대열에서 중학교 교원들을 제대하여 대령에게 따라
 제대되며 다시 자기 살던 끌호르에 돌아와 교원직업에
 착수하였다. 이당시에 즉 1944년 가을에 박춘 선생은 그 학



사진은 박춘 선생이 한민 공학교원으로 일할시
 1944년에 찍은것이다. 이 사진에는 북한에 가서 일하시던
 분들이 6명이 묘사되었다. 앞줄: 왼쪽으로부터: 단크 기술지휘
 국장 박일부, 박춘선생, 3. 7군단 군사위원 리춘백 소장, 4. 총정치
 조직국장 박태섭 대좌; 뒷줄 오른쪽으로부터 서북전선 군사위원
 김일 소장, 박춘 선생의 부인 강 아나브다씨야 블라호브나 등 6명

녀교인 강 아나브다씨야와 결혼하였다. 강 나씨는 (애칭)
 하유진은 블린 오를 7월 호르(7월 호르에서) 고공에서 교장을 하고
 이은 강 블라브 딸인바 그녀는 소련에 살고있는 한민 교원들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교원공로에따라 소련 최고 훈장 레닌 훈장을 받은
 유일한 인물이었다. 박춘 선생은 소년 시절부터 체육을 좋아하는
 건장 체이었다. 때 불에 벌써 원동에서 살고있는 때 불어 원동
 변경 하기 체육 시업다, 소년단 체육 시업 등에는 한 번도 빠진
 일이 블라지 보브도크, 하바롭스크시에 파견되어 참가하시었다.
 박선생이 특별히 좋아하는 체육을 배구였다.

박선생은 1945년 시얼에 하유진은 시군사령관부 명령에 따라
 원동변방 제1 전선 25군단에 파견되어 동역관으로 북한에



사진은 박선생이 리훈백, 박태섭 선생들과 같이
95군단 민전사령부 총액관으로 계시는 찍은 것이다.

들어가지게 되었다. 북한에 도착한 박춘 선생은 민전 사령부
에서 지르하는 출판물 지도부에서 일하면서 더적이면 조소문화
협회 지흥에서 조직하는 로어 강습소 교원도 하고, 여유시간에는
로어로 출판된 조선학교 교과서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프
육성 원찬 관리국의 사업에 가장 적절한 방도를 주었다. 1947
년에 조선로동당 중앙 당학교가 조직되자 박춘 선생은 그 학교
에 초대 되어 조선공산당사 상급 강사로 2년간 계시다가 1949년
봄에는 사회학 강좌관으로 인민군대에 1950년 7월에 중형

될 때까지 계속했다.

1950년 6월 25일에 인민군의 남침으로 동족상잔의 시작 되자 해병적 불의의 침공으로 달성한 성과를 말려야 하나 인민군대는 3일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3일간 휴식한다음 다시 남진하였으나 북동강 계선까지 당진하고서는 일보도 더 전진 할 수 없었다. 김일성이 서울을 점령하면 전조선은 다 점령한 것으로 계산하고 전략 전술적 계획을 그렇게 잡았던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이 내다보지 못한 유엔 안보리사회란 단체가 6월 25일에 자기 회의에서 북한을 침범자를 낙인하고 국제적 힘을 빌어 남한을 돕는다기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음 미국은 선제공격으로 세계 각국의 협력은 남한에 파견되어 북한이 침범자들을 방공격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바로 어디에 북한 군동맹은 북한 청년들에게 호소하여 평안 남로 육전에 민청사단으로 징라였다. 이 때로 조직된 민청보병사단은 북한 인민군이 공격 초시기에 3일만에 서울을 점령하여, 뚝뚝 만만 전진하던 동족상잔의 초시기의 정신에서 꿈꾸면서 하로 속히 남한에 나가 하늘에 달려 있는 별을 다 깎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으나, 초련으로 불어 기라리는 무기도 한약도 제때에 도착하지 않아 훈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바로 어디에 이 민청사단의 정치부장으로 박종선생이 임명되었다. 초련으로 불이 군부 물자들이 계속 공급을 통하여, 원동 변경 강 크라브 기노를 통하여 조선에 들어 오기는 하나 북한 전역에서 철도, 철교, 호널라 파괴된 조건하에서 다만 자동차로 서만 우월타길에 그 물자들을 만족하게 운반할 역량이 도저히 없었다. 얼마만 한 물자가 흥반되면 철도를 전선 부대들에 운송하여 주고 아직 전선에 가보지 못한고 훈련만 하곤 있는 30보청년사단은 그 차례가 먼저 불어났다.



사진은 1950년 하기, 박헌병이 타직 중앙당 학교 강좌장
으로 제설시에 찍은 것이다. 사진을 같이 찍으신 강나시교 사'모는
은 당시 평양시에 있는 소련 6고공에서 고위직책을 담당하
고 계셨다.

박헌 선생이 정치책임자로 임명된 제 30 민청보사는 훈령
을 잘받았다가 못받았던가 소련으로 불어 지각 총들은 보강받
았기 때문에 사격은 수반히 하여 불리 못하여도 종대형대 대열
정호를 맡아 전후 서열 정호를 맡고 행군하는 방법도 배웠었다.
상부 명령에 따라 사안은 한약들을 발리 못하고 행군하며,
평양-무주를 지날시 한시간 정지하고 군연 군중 대회를 열고 김
일성 원수에게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였다. 이노현 군중 대회는
총 정치국의 지시에 따라 박헌 선생이 조직지휘하였으며, 그 때 총
정치국 대표로 참석하였던 것이다.

맹세문에는 쓰기를: 조국의 근원한대기에 미래 강점자들은
우리의 조국을 자리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현대 남조선
을 강점하고 있는데 나아가서는 북방까지 자기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연천에 상륙하였다. 우리 제 30 민청보사정호들은 미래
강점자들을 우리 조국의 영토에서 쫓기 위하여 그들과 자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기 위하여 리공 전선에 나가 있었
다.

니다. 우리가 권력에 도착하여 비리 강권자들라 대항하여 격
 전할시 우리들은 자기 복음의 맞이밖 순간, 퇴원장을 마감할때
 까지 적어 항거하여 적을 불리치고 우리들도 평안을 수호하여 우
 리의 백전 백승의 지도자 어버이 당원제 충실한것을 믿어 합니다

편지 아래 끝에는 각노대들을 대동하여, 노대장, 중대장 이상 사단
 장까지 불러가서 부동하였다. 이렇게 접수된 맹세들은 총정족
 지도원에게 매끼고 간단한 점심 식사를 한다음 행군을 계속하
 였다. 사단은 행군을 하여 중화 사리원을 지나 황해로 서동
 장풍군 땅에 들어 섰으나 하북을 업고 행군하는 전사들은 낮이면
 관치 않으나 밤에 행군하러는 꽤 추웠다. 기관들은 전선에 나가면
 무었어던 다있다고 부하들에게 말하였고 전사들은 전선에 나가면
 사실 무었어던 다있을가하고 말하였다. 전사들은 금년봄에 호풍 풍습한
 16-17세 자라가 해반후나 되고 그외 성원들은 20-30세 되는 설인
 청년들이었으며 군복과 가운더는 여성들조차 약 20% 가량 되었다.
 그들은 다 대수 간호원, 흉년병, 열탕병으로 복병하였다. 그러나

사단 성원들은 밤이면 행군하여 나갈시 남에서 북으로 목표지점으로
 2-3씩 혹은 10여명씩 집행이를 잡고 잔등에는 바질 가나나를 취해
 고 걸어 들어오는 북상병들을 무수히 보았어던하, 전선에 물자가 많
 다면 북상병들이 가나나를 이북대선에 등에 취해고 들어올 수는 없
 겠는데 하도 이윤이 생기기로 하였다. 사단 성원들은 신병이 되
 여서, 아직 패잔병이란 무었어던 그 취지를 상상할 수 없었다.
 이번군대는 낙동강 계선까지도, 아니 특히 서울까지도 능능
 만 만 소리를 치며 몰달림쳐 전진하였대지만 낙동강 계선
 에서 두들려 맞고 유엔군 언천 상륙에서 또 어더 맞고, 서울을
 배회 샅리고 원제는 패잔병이 되어 체계적 지위를 잃고 산협은
 해서 노복대 별로 회각하고 었다는것은 이 신병들은 아직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단 지휘부 성원들이 사단장, 정치부장 한

당

문장, 국방부사단장은 앞으로 몇시후라 되겠는지 12시 일후가
 되겠는지, 당초를 종종에 대하여 간장을 말리하여 독을 태우고
 있었다. 사단은 인천강 계선에 도착하자 서울이 벌써 적에게
 할취 당한 이상 그 계선에서 방어태세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와
 다른 결정하고 방어서열을 편성하였다. 비록 한약은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신 한약이 도착할것을 예상하고 전후규정
 대로 사단 방어전원은 20킬로리터, 두개 권대의 전
 원은 10킬로리터씩 인천강 계선 적의 도하가 가장 유리한
 정반대 방향에 배치하고 한개의 권대는 후방 사단 지휘처
 와 같이 예비로 약 7킬로리터 떨어진곳에 배치하고 총
 신장들로 설치하였다. 권대에 두 권대가 배치된 제 1권대에
 정치부장이 사단 지휘처 대대로 자원적으로 내려다 있었고
 제 2권대에는 사단 군사부사단장이 내려다 있었다.
 두개 권대는 인천강 계선을 따라가며 약 20킬로리터 거리
 에 정수로를 2열로 백여척 간격을 두고 뚫다 권수파기에는 군
 인의 위원장과 부하하여 전군내 일할만한 성원들은 다 동원하여
 사방이름 들고 일꾼여관을 다 파냈다.

그런데 당시 전선사령부는 서울이 떨어질때쯤 서울에서 들
 어가 있었을지 거기에서 사단장과 정치부장이한스를 찾아
 갔었다. 전선사령관 김책씨는 알게서인 비록보위상 최용건
 차부가 계시고 보위고문서 두분이 계시는 어디에 한약이 운송
 되고 있다는 정보는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사단장이 사단
 장병이 더한 보고를 한다든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는가 하고
 보위상에게 물으니, 그는 말하기를 방어 전지를 잡고 한약을 기다
 리라는 것이었다. 그리다가 한약이 도착하지 않은 형편에서
 적이 공격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전선사령관이
 도착한다든 차후 지시를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사단장이 보위상계서 지시를 받고 있는 사이에 몰아쳐서
 지지 않은 끝에 자리잡고 있는 전선 정치국에 박출정치부장은
 찾아갔었다. 전선 정치국은 타직 서물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서울
 창경원에 있었다. 이때 전선 사령부는 울리흥치에서 정은공당
 창에 있었다. 당시 전선 정치국장에게 큰 김일이 있었고, 부국장에게
 작은 김일이 있었다. 전선사령과 큰 김일은 북동강계선에서 아직
 들어 오지 않은 것으로 박출 정치부장은 김일 정치부국장을 만나게 되
 었던바 그 좌석에서 레오노브 연천 해안 방어 라인 정치부장 장
 학봉씨와도 만나게 되었다. 당시 장학봉씨 형편도 박출 정치부장
 의 형편과 유사하였다. 박출시 사단성원들은 38선 이북 민족공화
 청년들로 구성된 연합부대였으며, 비록 한약은 받지 못하였지만 부
 장은 받아가지고 훈련을 한 대원들이었으나, 연천 여단 성원들은 안
 세 유엔군이 상륙할지 기이나 전부터 영웅적 결사전에서 강렬한 주
 임을 받다름 불과 501명, 다른 연천 지휘부성원들이 서울에서
 어와 전선사령부의 명령으로 서울시 청년들로 구성된 보충병 700
 명을 받아, 역시 임진강 계선 연천군에서 훈련하고 있었으나
 아직 아무런 무장도, 한약도 받지 못하였으나 일부 연천 전후방
 에서 끌고 나온 자동총 121식자극과 소련제 보총 몇자극 76식
 사단포 한류가 있었을 뿐이었다. 군복은 역시 공병시 한발씩 얻
 어온 허복이었다. 이들의 성분은 전부터 노삼일가, 리발사, 최사연
 오리사 - 서울 보충시원들이었으나, 인민군편에 포함되어 전쟁
 에 참가하여 어떠한 영웅심을 발휘할 기회를 받고 열매는 청년
 이었다. 그때문에 이들은 인민군 정황이 좋지못하고 후퇴하기 시작하
 는 것을 알게된 때 불어는 밤이되면 작기병영을 탈출하여 포방울 각부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환경에 처하여 있는 이들은 공화국을 수호
 할 하등이 병력으로 될수없고, 모히로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기위하
 여 준비하여야 할 포로병 집단과는 유사하였다. 두 연합부대 정치
 부장은 전선 정치 부국장하고 같이 점식사를 하면서 어떤 저런 사정

에 대하여 이야기가 많았다. 세 정치책임자들이 가족은 아직까
 지 평양에 있었으나, 벌회 서울이 함북 되었단다는 소문이 난 다음부터는
 가족추방 조정을 급급하게 하고 있었다. 소련 출신 간부들의 가족은 처음
 전쟁이 시작되자 조격이 없고 안전한 함북, 평북 자강도며 추방되었
 다가 유엔군의 거기까지 휘둘러온다는 소문이 만주 지역, 북단강
 변길 동정 할빈시 등에 추방하기를 당혹망으로 결정하였다. 대
 물에 전선에 나와 활동하고 있는 간부들은 가족에 대한 근심은 없었

1950년 9월 28일 저녁 6시경이 되어 두 정치부장과 각은
 김일이는 어별하였다. 이 만남의 환경은 박출 정치부장 하코는 하
 리별이였다. 박출 정치부장은 사단장하고 같이 월원 전선 사령부에
 와서 어떠한 문제로 쫓겨나게 해 줄하지 못한채 사단 밤어 계선
 세 도라... 가게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단 한가지로 결심한것은 환
 경을 봐서 사단 지휘부의 지체 결심대로 행동해야 된다는것이
 였다. 그러나 두명은 돌아오면서 탄약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적은 임진강 이북으로 들어 올지 안지로 약속하였다. 이것은
 탄환이 없는 전쟁이란 환경전언어 총격전이란 100년전에는
 위선 없는 전술어였으나, 현재 20세기 중엽에와서야 무리이한
 죽음의 전술어였다. 당시 전후장에서 1대 전사가 1초 동안에 1킬로
 그램의 탄환을 상대방에 내뿜는 자동총 앞에서 어떤 총격
 전에 대한 말이 있을수 있은가 말이다. 부분적 전사들이 자기의
 부지런 함에 따라서 몇몇몇개의 탄환은 짐만하였다 하여태로
 그것을 가지고 현제 손톱까지 무강한 유엔군 앞에서 는 방어
 말로 안되는것이요, 사단장과 정치부장의 결심은 전함부대의
 무어이한 열방의 결심언것이 확연하였다. 전쟁 환경에서는 견
 한 정치적 각성이나 수령에 대한 해산같은 충성심만으로는 적의
 탄환을 막아 낼수 없는것이다. 자기 방어 권리에 도착하자
 박출 정치부장은 지휘관 정치일꾼들이 전함회의를 열고 월원전
 선 사령부에 갔던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사단장과 결

심한 이야기를 한다음 각 중대별로 근무자 총회를 열고 수형제
 들이는 명세서를 집부하게 하였다. 방축 경치부장은 소련 조국전쟁
 시기에 소련의 수도를 사수하기 위하여 공격해 들어오는 파초 독일감격
 자들의 공격을 좌절시키고 도망치게한 영생 불멸의 만반필로브 부대
 성원들의 숫자를 반복할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환경이 전혀 정반
 대였다. 비한필로브 부대 전사들에게는 무장과 함께 한약이 없었던지
 있었다. 그들은 산에서이러한 불어 들어오는 단코 종대들을 얼추
 대타격을 주어 도망치게 하였다. 이 전투에서든 다만 죽음을 겁내지
 않는 용감성이 필요하여 달려드는 단코에 사격만 하신 되었다.
 그러나 30 명 정도 1원대 성원들에게는 포도, 기관총도 없이,
 다만 었다는것이 몇개의 우리한라 항을 맞은 보통 병이었다. 한약
 이 없었다면 문제가 달랐을 것이다.

원원에서 연합부대 방어 계획에 귀환할시 사단 경치 부장과
 굳게 결심한 사단장의 말은, 적이 코앞에 당진하여 임진강을
 도하하여 전면적 공격 준비 포사격으로 할시 그 결심이 변경되
 경치 부장게 처연상 명령으로, 적에게 온대 방어계선을 신속
 히 내며 주근 영생 력침을 보전할 목적으로 사단 예비계선의
 후회하여 들어 오라고 하였다. 명령은 즉지행식으로 서서 자기
 부관을 의의 전 달하였던 것이

전쟁이란 일정한 법이 있는지라, 적이 10-15분을 앞서 포사격
 할라는것은 공격을 예상한 준비사격인데 이때에 자기 전호들에
 잠복하여 적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는 야군을 일제히 후회
 다는것은 폭주간에 들어보는 소무리나 한가지 형상이 되고
 것이다. 적은 공격하면서 대복합이 있으면서 더가 가까이 접근 한
 음 총을 소리가 항으로 지르려고 기다리고 있는 야군을 발견
 가며 사격할 대신에 꾸꾸어 서서 도망치는 야군을 쏘기능 느린
 진항 불에서 (불에서) 불고기 잡이나 되어 있을 것이다.

박을 정치부장은 급속히 현대장을 불러 간단히 전지 내용을 이야기
 하니 현대장은 군사간 부하,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였다. 현대
 장을 후회시키라 1년 적어도 두시간이 요구되는 데, 이 환경에서 현대
 장을 불러 세워서 후회한다는 것은 권체 인원들을 고기항으로 만든
 다른 적인 데 죽어라도 방어 세력에서 진지를 차지하고 접근하는 적으로
 (적들) 죽어면서 피갑이나 하는 죽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말에 박을
 부장도 동의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현대장은
 그 즉시 각 전호들에 전하리, 적들잡으면 인차소에서 무기를 빼
 았다 다른 적들을 살상할 것을 지시하였다 현대장의 구령은
 전면 전호들에 까라후식간에 전달 되었다. 전사들의 사령은
 포사격시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적들이 육박하여 들어 올서
 세도 머리를 들고 먼저 일어 서지 말고 꼭 배려 었다나 적이 접근
 하려면 일어서 참으로 지르라는 것이었다. 물론 적은 자등총을 쏘았
 으나 사격할 것만 사실이다 그러나 हम을 재빨리 쓰면 적만 쏘
 인 참으로 그 적을 살상할 수로 있을 것이다. 어떤 전호는
 맞이 박으로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죽임과 죽임을 바꾸는 전호였
 적은 이진강에 접근하여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임전감도 하
 준비하고 있었다. 제 20 연성분사는 이 환경을 번히 건너다 보
 12년으로 매 총화기도 포탄방 발사 할 수 없었다 일일 동안이
 면 일하게 준비한 유엔군 부대들은 제 1 현대, 와 제 2 현대정원
 에서 도하를 하는 것이었다. 이 때에 벌써 제 2 현대는 자
 리에서 후회하여 5 기로 2리 이상 후방에 들어 갔던 하
 제 2 현대는 사단장의 후회 지시가 내리기 전에 벌써 전지
 내 쪽으로 현대장 결심에 의하여 회각하였던 것이다. 적
 이란 괴상한 집단이다 적은 벌써 어느나이에 이것을 알고
 제 2 현대 정면에 주의를 배치하여 전전하고 제 1 연
 대 정면에는 부차적 적 함을 배치하여 가능한 정도에서만

공격하리면서 그런데가 자기 역향을 발휘할수만 없게하리면서 제자리에서 멀어 있게 하고 좌측 저항력이 없는데 오른쪽에 전지를 통하여 사단 예비계선에 접근하는데서 제 1연대를 수회 포위 전술을 꾸미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대는 머리를 들고 일어 설수 없어 계속 적의 공격만 기다리면서 12회복원채로 참치고 있었다. 적은 정면으로 측면으로 후방으로 삼면 공격을 하여 제 1연대를 섬멸적 타격을 주고 있었다. 연대는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몇몇 남은 성원들이 패잔병으로 무질서하게 퇴각하였다 바로 이 전후에서 정치부장 박춘 선생이 장엄하게 전사들과 같이 전사하였다. 연대장도 전사하였다 이것은 바로 1950년 10월 5 일이었다. 사단 정치부 성원들은 후회하는 전사들에게 박춘 선생에 대하여 물으니 그들은 대답하기를 사단 정치부장과 연대장은 전사들과 나라에서 귀환으로 몇번 발사하고 그 자리에서 장사하시었다고 하였다. 그 이후 제 30 민항보사는 남여지 2개 연대 성원들을 데리고 행군하여 평양 방어 권역으로 참가하려물라고 다시 자기가 조적된 본지 평남 육천에 도착하였다. 그들이 육천에 도착한 그 이튿날 1950년 10월 12 일에 육천에 유엔군 낙하산부대가 무림이 낙하하였다. 이 낙하산 부대로, 벌써 여기에 집결한 제 30 민항보사는 한약 없는 비병력 집단이란것을 잘 알수있었고 군사 행동을 하였던 것이다. 30 민항 보사 2개 연대도 이 낙하산 부대가 착륙하는 바람에 완전 붕괴되어 절반 이상 성원들은 완전히 도망치고 그 남여지도 무질서하게 반주군 유곡(연)에 도착하여 12회복원이 있었다. 어떻게 제 30 민항보사는 비연예스럽게 자기 존재를 끝냈고, 남여지 패잔병들은 후회 과정에 최고 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다른 연함부대에 편입되고 말았다.

박훈 정치부장의 전사한 이후 그의 가족에 대한 력사.
 박훈 선생이 전사한 이후 박훈 선생의 가정에는 아들 형제
 와 딸 하나가 있었다. 박훈 선생의 사모님 강나사 양은
 근본 직업이 교원인고로, 전쟁시기에는 후퇴하여 임시적으로
 가 있는 함빈시에서 교원으로서 일하셨으며, 전쟁 이후에
 는 다시 평양에 나와 교원으로 복직하는 6고종과 교원 대학
 등에서 교원생활을 하시다가 1956년에 부모들과 친척들이
 살고 있는 소련에 돌아왔다. 소련에 돌아와서 모스크바에서
 박훈 선생에 대한 전반적 복음은 한라음 강나사 사모님은
 유가족으로서 특별한 우월권으로 아이들에 대한 국가적 보
 조비, 사학보장, 취직문제, 아이들의 학업지속문제 등을 해
 결하여 가지고 유르베르크 공화국 라스겐으로 오게 되었다.
 하류계급에는 별권인제 끌호르에 강나사 사모님의 복음
 들어 계셨으며, 박훈 선생의 친형, 친누이 조카들이 복음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강나사 사모님은 남편은 없으나, 친척들이
 많아서 외롭지 않았으며, 아이의 손간이 돌보았으며
 방조를 받도록 하였다. 강나사 사모님은 1985년까지
 계속 하류계급 여러 고종들이나 교원으로 일하시다가 현
 재 공복있는 연금생으로 휴직하고 있으나, 별 5년째 중
 환으로, 고혈압 병으로 신음하고 있다. 현재 맨 걸터
 앉아서 쓰러지고 같이 계신다. 아들들은 전부다 대학을
 나오고, 장남은 비스네스맨으로 차남은 전공으로 산업기관
 에서 일하고 있다. 형박하나 유가족 후원회 성원으로, 조국
 통일에 대한 언행은 알지 않고 있으며, 신물은 비바짐없이
 살리고 있다.

유가족 후원회가 제공한 재물에 따라
 친누이 박안표님과 이와 같다.
 1995. 12. 11. 라스겐.